

중심타선, 중심 잘 잡아줬다

KIA 타이거즈 결산

② 중심타선

최형우·안치홍·김주찬... 가을야구 입성 한몫

하위 타선 등 부진 불구 팀 타율 2위 견인도



그래도 클린업트 리오가 중심을 잘 잡아줬다. 아쉬운 가득한 한 해를 보낸 KIA 타이거즈는 보는 관점에 따라 잘했다고도, 못했다고도 할 수 있다. 타선을 보면 더욱 그렇다.

팀 순위는 70승 74패로 5위에 그쳤지만, 타격 하나만 놓고 본다면 모두 부진했다고 생각할 수 없다. 팀 타율 0.295로 두산(0.309)을 제외한 다른 구단들보다 좋은 타격감을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중심타선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최형우-안치홍-김주찬으로 이어지는 클린업트 리오는 지난해 '핵타선'을 떠올리게 할 만큼 막강한 화력을 과시했다. 이들은 모두 3할대를 훌쩍 넘는 타율로 제몫을 해냈다. 규정타석을 채운 선수들 중 팀 내 타율 1, 2, 3위가 모두 중심타선에 있는 것만 봐도 올 시즌 KIA가 얼마나 중심타선에 의존했는지 알 수 있다. 먼저 최형우는 3번 타자로서 맹활약을 펼쳤다. 시즌 초반 그는 3월 한 달 동안 타율 0.269로 아쉬운 첫발을 내딛었지만 4월부터 무서운 폭발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4월 한 달 동안 타율 0.405를 기록하며 전반기 마치고 전반기 3할 이상 타율을 유지했다.

잠시 주춤한 시기도 있었다. 7월에는 2할 후반대로 부진했다. 그러나 최형우는 곧바로 타격감을 회복, 8월에는 0.413, 9월과 10월에는 3할 중반 대 타율을 유지했다. 그 결과 전년도(0.342) 보다 3리 정도 줄인 했지만 타율 0.339를 기록하며 시즌을 마감했다.

타점은 103타점을 세우며 5년 연속 100타점을 달성했고, 홈런은 25개를 쏘 올려 6년 연속 20홈런 고지를 넘었다. 안타 수 179개로 2016년 삼성시절 세운 195안타에 그치지 못하지만 두 번째로 많은 안타 수를 세웠다.

KIA의 핵타선은 최형우에 이어 안치홍으로 이어진다. 안치홍의 이번 시즌은 타선 에이스로 거듭난 해였다. 130경기에 출전할 동안 494타수 169안타(23홈런) 118타점 88득점 0.342타율을 기록했다. 2009년 프로데뷔 이후 올해 가장 높은 타율로 마감한 것이다. 종전 최고 타율은 2014년 세운 0.339이다. 홈런 수는 지난해 21개를 넘어 23개를 달성하며 한 시즌 최다 홈런 기록을 새로 썼고, 타점도 처음으로 세 자릿수를 찍었다. 그의 가량은 시즌 초부터 돋보였다. 3월 0.357타율로 시작한 안치홍은 점점 컨디션



최형우

이 좋아지더니 4월부터 본격적인 불방망이를 휘둘렀다. 그러다 5월에는 97타수 안타 38개를 뽑으며 타율을 0.384까지 끌어 올렸다. 그의 기세는 시즌 중반이 됐어도 여전했다. 6월 5일 kt전에서 4할대 타율로 올라서더니 7일 만에 0.415타율을 찍는데 성공했다. 이계 전부가 아니다. 안치홍은 찬스에도 강했다. 주자가 없을 때 타율은 0.315지만 주자가 있으면 0.367로 경종 뚫는다. 득점권에 주자가 있으면 0.403으로 집중력이 더 살아났다. 이같은 활약에 어느덧 그의 타순은 4번 타자로 변경됐다. 안치홍은 4번 타자로 이름을 올린 뒤에도 두 차례나 그랜드슬램을



안치홍

달성하는 등 '강한 한방'을 보였다. 김주찬의 선전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캡틴'다운 면모를 과시했다. 정신적 지주뿐만 아니라 성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한 해를 보냈다. 사실 김주찬이 올해 이정도 잘해 줄 것이라는 믿음은 반반이었다. 나이도 40대를 바라보고 있는데도 지난 시즌에는 겨우 3할대 타율을 넘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주찬은 올 시즌 전반기 못지않은 기량을 드러냈다. 타율 0.340 93타점 71득점 18홈런을 기록, 그의 타율은 안치홍에 이어 팀 내 2번째로 버겁다. 그가 3할 4푼대 타율 이상으로



김주찬

시즌을 마친 것은 2016년(0.346)과 2014년(0.346)밖에 없다. 김주찬의 방망이는 일찌감치 불타올랐다. 시즌 초 kt, LG, 삼성 등에게 강한 모습을 보인 그는 꾸준히 3할대 타격감을 지켜왔다. 시즌 중반에 흐르자 타격감은 더욱 뜨거워졌다. 8월까지 타율을 0.345로 끌어 올린 김주찬은 시즌 초반에 비해 0.010포인트 상승세를 유지했다. 중요했던 시즌 막판에는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였다. 9월 28일 LG전부터 15경기 동안 득점이나 타점 등을 뽑아내며 팀 승리에 공헌했다. 한경닷컴 hankk42@naver.com

'호랑이가족 한마당' 27일 개최

KIA타이거즈가 오는 27일 정오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선수단 전원과 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 호랑이가족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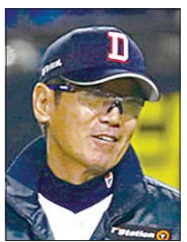
이번 행사는 2018시즌 동안 열정적으로 응원해준 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한 팬 참여형 이벤트다.

이날 KIA타이거즈 선수단 전원은 팬들과 다채로운 레크리에이션을 즐길 예정이며, 숨겨진 끼를 마음껏 발산해 팬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줄 계획이다.

KIA타이거즈 열혈팬인 개그맨 박성광 씨가 진행을 맡아 즐거움을 배가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는 불펜 및 더그아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라운드 이벤트로 시작해 ▲팬사인회 ▲선수단 사진전 ▲시즌 영상 상영 ▲신인선수 및 군 전력 선수 소개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한경닷컴 hankk42@naver.com

이강철, KT 위즈 감독 내정



이강철

프로야구 KT 위즈가 이강철(52) 두산 베어스 수석코치를 3대 감독으로 내정했다. 계약기간은 3년이며, 계약금은 포함해 총액 12억원에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강철 신임 감독은 광주제일고와 동국대를 졸업하고, 1989년 해태 타이거즈(현 KIA 타이거즈)에 입단했다. 16년간 KIA와 삼성에서 선수 생활을 했다. KIA 왕조 구축에 일익을 담당하는 한편, 10년 연속 10승 및 100타점 달성, 1996년 한국시리즈 MVP 등 KBO 역대 최고의 언더핸드 투수로 군림했다. 뉴스

종합 10위... 8년만에 최고 성적

제99회 전국체전 결산

④ 전남

집행부 지원 협력 체계 구축 시너지 효과

육상 수영 등 기초 종목 육성책 마련 시급



전남은 최근 폐막한 제99회 전국체육대회에서 47개 종목 1천644명의 선수단이 참가, 3만2천708을 획득해 종합 10위에 올랐다. 이는 지난해 대회보다 3단계 상승한 것으로 8년 만의 최고 성적이다. 전남은 지난 2016년 전라중목 육성(5개팀)을 골자로 한 '전남체육 중·장기 발전 방안'이 실효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전남체육고를 중심으로 한 학교체육과 전남도청을 비롯한 직장팀의 선전도 큰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특히 지난 9월 19일 새로 출범한 전남체육회 집행부의 지원, 도청-교육청-체육회와

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축구·핸드볼·사격·육상 등 종목에서의 호성적도 큰 힘이 됐다.

박철수 상임부회장-정간배 사무처장 체제의 새로운 집행부가 대회 마지막 날까지 현장 곳곳을 누비며 응원과 격려로 선수단의 사기를 북돋운 점도 좋은 성적을 낸 요인이 됐다. 이는 체육회 안팎의 견해다.

각 종목에서는 목표시점(2위)·세한대(3위)이 분전한 축구(1천374점), 무안고·백제고(이상 8강)의 핸드볼, 사격에서 기업은행 연고팀 유치를 통한 득점 상승(1천530점), 육상(2천985점, 642점 상승) 등이 전남의 종합 10위 달성을 주도했다.

이는 2009년(90회), 2010년(91회) 2년 연속 종합 10위를 차지한데 이어 8년 만

에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다.

전남은 2016년 역대 최하위인 종합 14위(97체전), 2017년 종합 13위로 이번 대회 목표했던 종합 12위를 무려 2단계나 뛰어오르는 괄목할만한 성적을 거뒀다.

라비와 당구(2위), 축구, 불링, 궁도(3위), 요트, 스쿼시(4위), 롤러, 사격, 산악(5위) 등이 상위랭크에 오르며 전남의 상승세를 주도했다.

그러나 육상과 수영 등 기초종목 부진, 레슬링과 펜싱 등 전통적 강세 종목과 전략 종목의 부진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함께 해마다 열리는 전국체전에 맞춰 각 종목 육성이 이뤄짐에 따라 다양한 종목에서의 고른 입상과 저변 확대, 장기적 선수 발굴 육성대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체전에서 입상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대회를 통해 드러난 각 종목에서의 과제를 하나하나 점검할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종목 육성과 취약종목의 발전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민석 기자 backdoor20@nate.com

구례여중 손예령, 양궁 리커브 개인종합 3위 입상



2018 하계청소년올림픽 여자 양궁

손예령(구례여중 3년·사진)이 IOC(국제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2018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하계청소년올림픽 여자 양궁 리커브에서 개인종합 3위에 올랐다.

손예령은 지난 17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벌어진 대회 여자 양궁 리커브 개인종합에서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손예령은 이번 대회에 왕희송(동광양중 3·수영 여자 평영200m)과 함께 동메달을 각각 획득하는 기쁨을 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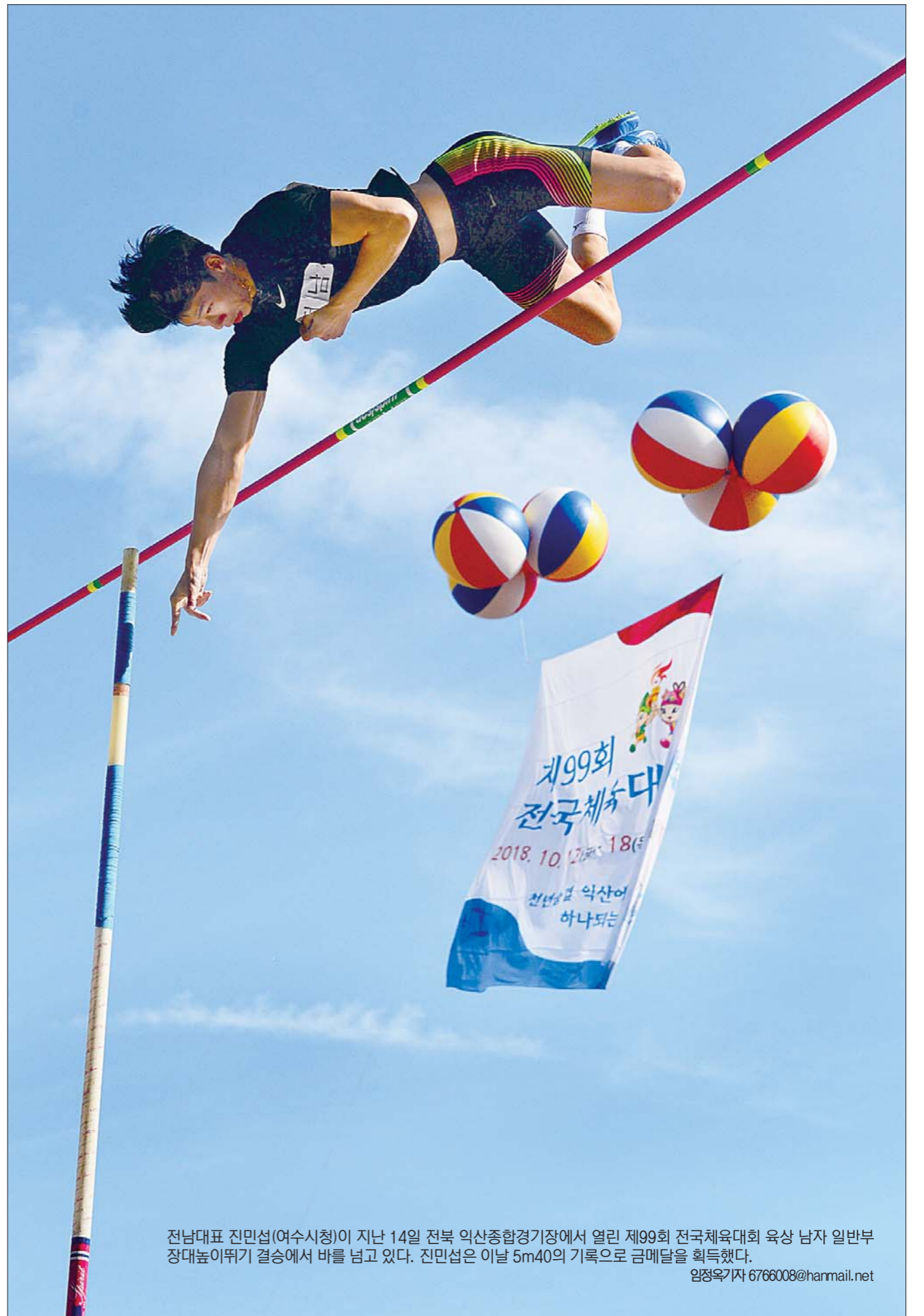
특히 이들 쌍둥이치는 '예비 올림픽'인

이번 대회 입상으로 해당 종목에서의 기대주로 떠올랐다.

손예령은 양궁 여중부 국내 종합랭킹 1위로 올해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메달 1개를, 전국중별선수권에서도 개인종합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구례중앙초등 5학년부터 활 시위를 당기기 시작한 손예령은 타고난 체력과 집중력, 양궁에 대한 열정을 가진 선수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14개 종목 51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한국은 지난 19일(한국시간) 막을 내린 대회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4개, 동메달 7개 등 총 12개의 메달을 획득, 종합순위 43위를 차지했다. 최민석 기자 backdoor20@nate.com



전남대표 진민섭(여수시청)이 지난 14일 전북 익산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육상 남자 일반부 장대높이뛰기 결승에서 바를 넘고 있다. 진민섭은 이날 5m40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임정욱 기자 676008@hanmail.net